

**법무부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지침서**

2018. 6.

법 무 부

||| 목 차 |||

제1장 공모개요 3

1. 개요
2. 응모자격
3. 공모 일정 및 장소
4. 심사

제2장 설계지침 7

1. 공모 주제
2. 공모 이슈
3. 공모 내용
4. 작성 및 제출
5. 기타사항

제1장 공모개요

1. 개요

가. 공모명

○ “법무부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나. 공모 목적

- 1) 미래가치를 반영한 사람·프로그램·교정철학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교정시설 표준모델(Prototype) 개발
- 2) 대학(원)생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발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한 교정시설 아이디어 발굴

다. 공모 방법

- 1) 1차 : 제출도면 심사 → 6팀 선정 ※ 1팀 1작품 제출
- 2) 2차 : PT 심사 → 최종 입상 결정

라. 시상내역

구 분		시상내역	
대 상	1팀	법무부장관상	상금 400만원
최우수상	1팀	법무부장관상	상금 200만원
우수상	2팀	법무부장관상	상금 100만원
장려상	2팀	법무부장관상	상금 70만원
총 계	6팀	법무부장관상 6	총상금 940만원

- ※ 2차 심사 대상 6팀에게 소정의 모형제작 지원비 지급 예정
- ※ 입선자(팀)의 수는 응모작품의 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관련법에 의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

2. 응모자격

가. 응모자격

- 1)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전공불문)
- 2) 1팀은 1인 ~ 3인으로 구성, 팀당 대표 1인 선정

나. 유의사항

- 1) 모든 팀원은 다른 팀에 중복 참여 불가
- 2) 응모마감 후 중복응모가 확인된 경우 모든 중복응모는 무효 처리
- 3) 대표자 임의 변경 불가, 대표자의 의사표시는 팀 전체의 의사표시로 간주

3. 공모 일정 및 장소

- 2018. 6. 5.(화) 공고 및 접수 개시
- 2018. 7. 5.(목) 접수 마감
- 2018. 8. 16.(목) 작품 제출
- 2018. 9. 5.(수) 결과발표

가. 공고

- 1) 일자 : 2018. 6. 5.(화)
- 2) 공모지침서 게시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http://www.corrections.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및 교정본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ojcor>)

나. 참가 접수

- 1) 기간 : 2018. 6. 5.(화) ~ 2018. 7. 5.(목) 24:00까지
- 2) 방법 : 이메일(wonneo@korea.kr)을 통한 신청서 접수
- 3) 접수서류
 - 가) 신청서[서식 2]
 - 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서식 3]
 - 다) 재학(휴학) 증명서

다. 질의 접수

- 1) 일시 : 2018. 6. 27.(수) ~ 7. 5.(목) 12:00까지
- 2) 방법 : 이메일(wonneo@korea.kr) 질의(전화·우편 질의 불가)

3) 유의사항

- 가) 공모전 참가팀(자)은 당해 공모지침서의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가능[서식 1]
- 나)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질의접수 기간 이후 게시
- 다)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않음
- 라)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 및 제공도서의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

라. 교정시설 견학(예정)

- 1) 목 적 : 공모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정시설 견학
- 2) 참여자격 : 공모전 참가 접수를 완료한 팀
- 3) 접수기간 : 2018. 7. 6.(금) ~ 7. 9.(월) 12:00까지
- 4) 접수방법 : 이메일(wonneo@korea.kr) 접수
- 5) 일 시 : 2018. 7월중 예정,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추후 공지

마. 작품 제출

- 1) 일 시 : 2018. 8. 16.(목) 10:00부터 17:00까지(시간엄수)
- 2) 방 법 : 방문접수, 제출일시에 도판 및 구비서류를 제출
※ 우편, 택배접수 불가
- 3) 장 소 :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국제회의실
- 4) 구비서류 : '제출물 목록' 참고

바. 1차 심사

- 1) 일 자 : 2018. 8. 23.(목)
- 2) 내 용 : 제출 도면, 서류 심사

사. 2차 심사

- 1) 일 자 : 2018. 8. 31.(금)
- 2) 내 용 : PT(프레젠테이션) 및 모형 심사
- 3) 자세한 시간과 장소, 준비물 등은 추후 공지

아. 결과 발표 및 시상

- 1) 1차 발표 : 2018. 8. 24.(금),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 2) 최종 발표 : 2018. 9. 5.(수),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 3) 시 상 : 2018. 10. 26.(금), '교정의 날' 행사장, 장관님 수여 예정
- ※ 상기 일정 등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심사

가. 방법

- 1) 2차 심사 대상 팀은 10분 분량의 PPT 발표 및 모형 준비
- ※ 1차 심사를 통과한 팀이 2차 심사에 불참할 경우 입상 불가
- 2) 심사 점수는 비공개

나. 심사위원회 구성 : 총 5인

- 1) 건축학 교수 3인
- 2) 교정공무원 2인

다. 평가기준

창의성, 효율성, 보안성,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

제2장 설계지침

1. 공모 주제

- 21C 한국형 미래 교정시설 표준모델(Prototype) 설계: 수용자 200명 규모의 미니교도소

※ 표준모델(Prototype)이란 자기 복제, 반복 또는 변형이 가능한 정형화된 기본 형태를 뜻함

2. 공모 이슈

- 수용정원을 초과한 과밀수용, 직원 수의 감축, 교정프로그램 수의 증가,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 발전 등, 현재 교정당국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이런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물로서의 교정시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시설의 주 사용자인 직원과 수용자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수용동은 교정이념과 사용자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핵심공간이며 앞의 문제들을 해결할 중요한 열쇠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전주형과 방사형 모델은 약 50년 전에 미국과 일본에서 유행하였던 모델이고, 이 오래된 모델은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 사회와 교정철학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만큼 사회적 현상과 인간적인 처우가 반영된 새로운 표준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3. 공모 내용

가. 목표

수용동(유닛)과 영역별 프로그램 공간을 포함한 21C형 교정시설의 표준모델(Prototype)을 제시할 것

나. 대상지 개요

- 1) 대지면적 : 5,000m²
- 2) 연 면 적 : 4,000m²(공용면적 포함)

다. 공간별 리스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공 간 설 명
수용자 관리 영역	수용자 개인 공간	수용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실별 수용인원 제한 없음 ·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 전염병 수용자 등 일부 격리거실 고려 · 수용자 거실 내 침대생활을 기준으로 설계하되, 혼거실은 2층 침대 활용
	수용자 공용 공간	Dayro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자들이 공동으로 휴게하는 곳으로 대화, 장기 등의 간단한 게임, 간식 섭취 등 사회성 및 인간관계 회복을 위한 다목적 공동영역 · 수용거실 등 수용자의 활동이 명확히 보이는 곳에 교도관이 근무하는 개방형 데스크 위치 · 공용화장실 포함
		샤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과 순번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 동안 수용자가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 · 시각적 계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
		세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탁기가 비치되어 있는 공간
		실외운동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등 재난 시 대피공간으로도 활용 가능
	수용 생활 지원 공간	업무처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자들을 시선으로 관찰하기 용이한 곳에 수용구역별 1개씩 배치 · 수용거실구역에 고정 배치된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하며 행정처리 등의 업무를 하는 곳
		진료상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가 방문하여 진료를 보거나 상담관련 직원에 의한 상담을 하는 곳
		다목적실	
	관리 공간	수용관리 총괄사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동 보안업무와 행정업무를 총괄 지원·관리하는 공간 · 수용자의 보안 및 처우에 관한 부분을 총괄 운영 · 각 영역과의 적절한 관계와 위치를 유지해야 함
		종합상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동 출입 통제 및 각종 CCTV 영상을 보며 수용자 관찰 및 수용동 내 상황을 파악하는 곳
		조사·상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싸움, 폭행 등 규율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곳
		화상접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자가 외부인과 화면을 통하여 접견하는 곳
	선택 공간 (예시)	도서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고가 있고 수용자가 책을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공간
		교육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교육, 자기개발 교육 등의 공간
		실내작업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커스페이스(3D 프린팅, 프로토타이핑), 목공, 화훼 등의 작업 공간
		실내운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에서 맨손체조, 탁구, 고정형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종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배, 법회, 미사 등 각 종교집회 및 행사가 열리는 곳
		기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공 간 설 명
교도관 후생 영역	교도관 후생 공간	직원식당	· 직원 식사를 위한 공간
		직원휴게실	· 직원 휴게 및 간단한 직원교육을 하는 공간
		직원침실	· 야간 근무자를 위한 침실
출입 영역	출입 영역	로비	
		정문 (출입관리실)	· 주벽(담장)과 접한 공간으로서 구내와 구외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 · 사람과 차량에 대한 신분확인 및 물품 검사 등을 통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공간
		직원탈의실	· 출퇴근시 근무복과 사복으로 갈아입는 공간
		소장실	· 교도소장의 집무실
		사무실	· 교도소 운영과 관련한 행정업무 공간(인사, 예산 등)

라. 유의사항

- 본 공모전의 교정시설 수용동(유닛) 표준모델(Prototype)은 수용자와 교도관의 기본적인 요구와 함께 계호의 효율성을 존중하는 현실적인 감각을 지녀야 하며 교도관과 수용자 사이에 새롭고 발전된 관계를 만들어 낼 것이 요구됨
- 수용자관리영역·교도관후생영역·출입영역 사이의 관계를 **보안, 긴장, 개방**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각 영역 간 **전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
- 교정시설의 주벽(담장)의 높이는 5M로 할 것
 - 보안이 최우선시 되는 ‘수용자관리영역’, 중간영역으로서 긴장의 성격을 갖는 ‘교도관후생영역’, 다소 개방적인 성격을 갖는 ‘출입영역’의 관계를 설득력 있게 풀면서 주벽(담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여야 함
 - 전체시설을 ‘정문(출입관리실)’을 제외하고 5M 높이의 담장으로 둘러싸는 것도 가능. 또한 건물벽체 일부가 주요보안영역을 둘러싸는 5M 높이 또는 그 이상의 담장 역할을 할 수도 있음

- 보안을 철저히 고려하되 영역별 위계에 따라 해석할 것
- 건물의 개수는 제한 없음. 다만, 부지·공간·동선·관리의 효율을 고려할 것
- '다. 공간별 리스트'항목의 모든 공간은 의무적으로 배치하되 각 실별 개수는 제한 없음
- '수용자관리영역 - 선택공간' 영역은 선택영역으로서 설계자의 의도 또는 계획에 따라 종류 및 개수에 상관없이 배치 가능하며, 또한 선택영역의 모든 공간을 채택하지 않는 것도 가능. 다만, 면적은 총 연면적 내에서 활용
- 위 리스트에 열거된 '수용자관리영역 - 선택공간'의 각 공간은 예시로서, 수용자 교정교화의 공간 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간 등을 설계자의 시나리오에 따라 신설·추가할 수 있음
- 대지의 형상은 자유
- 도시적 콘텍스트는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나, 표준모델의 특성상 도시적 콘텍스트 개입 이전의 자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목표임을 이해할 것
- 3층 이하로 계획할 것, 복층형 가능
- 자연채광과 통풍을 고려할 것. 다만, 계호의 안전성을 견지할 것
- 교도관의 계호 위치와 방식, 그리고 계호의 효율성에 유념할 것
- 각 공간은 목적과 용도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부 분리할 수 있음
- 수용자의 식사공간과 잔반·식기처리공간을 마련할 것. 거실 내 혹은 거실 외 일정장소 식사 등 모두 가능하며 다른 별도의 공간 마련 시 선택영역 활용
- 인간의 존엄성과 보안이 양립할 수 있는 생활조건을 갖추어야 함
- 공기·공간·조명·난방·환기·기후 등 수용자 건강유지에 필요한 사항 고려
- 전체 연면적의 $\pm 5\%$ 범위에서 조정 가능

- ‘붙임 4. 공간별 참고 면적(예시)’ 는 응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로 신축 예정인 전주교도소의 면적을 근거로 작성한 단순 참고자료로서, 설계자는 자신의 계획과 시나리오에 따라 각 공간별 면적을 제한 없이 설정할 수 있음

4. 작성 및 제출

가. 제출물 종류

구분	제출물	규격/축적	수 량	비 고
신청	신청서	서식	1부	· 서식2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1부	· 서식3
	재학(휴학) 증명서		1부	· 팀원 모두 제출 · 제출일 기준 한달 이내 발급분
작품	응모작	A1	2매	· 도판으로 제작
	작품설명서	A4	8부	· HWP 파일, 표지포함 6매 이내, 자유롭게 구성
	CD		1개	· 응모작 *.pdf, *.jpg 파일 두 가지로 제출, 도판과 동일 크기, jpg 해상도 300dpi 이상 · 작품설명서
	모형	1/100 축적	1개	· 2차 심사대상 팀만 해당

※ 응모작은 도판 및 전산파일 형식으로 제출

※ 1차 심사를 통과한 팀은 2차 심사 시 작품 모형 제출

나. 응모작 작성지침

- 1) ‘설계지침’을 참조하여 작성
- 2) 규격 : A1 (594mmx841mm) 2매
- 3) 재질

도판은 두께 10mm 폼보드(우드락)에 부착하여 제출하되, 별도의 액자를 하거나 장식물 부가를 금함

4) 표현 기준

- 가) 모든 작성내용(글자, 그림, 스케치, 도해, 사진 등)은 칼라사용 가능
- 나) 스케치, 사진, 도해, 다이어그램, 이미지를 활용하여 아이디어

표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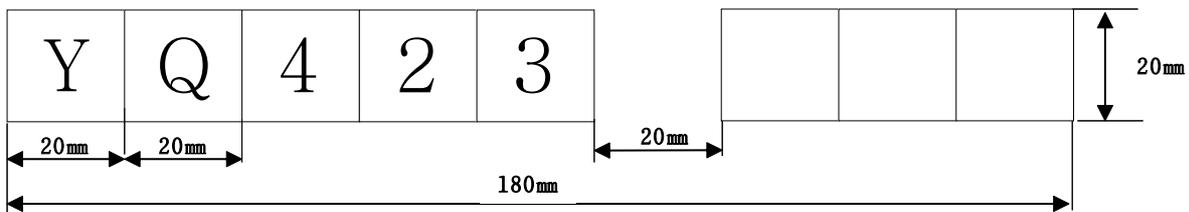
다) 도면의 방위는 도판 상단이 정북이 되어야 함

5)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출물에는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문양, 채색 등 어떠한 표현도 금함

나) 응모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응모자 스스로 만든 고유번호를 작성하여 패널 뒷면 우측 상단에 반드시 기입

<예시>



※ 첫째·둘째 칸에 임의의 영문 알파벳 대문자 두 개를 기입하고 셋째 칸부터 다섯째 칸까지 임의의 숫자 3개를 연속하여 기입한 뒤, 한 칸을 띄우고 일곱째부터 아홉째 칸은 빈칸으로 함

다) 제시(안)에 대한 부연설명 등 필요시 서술 가능

라) 제공하는 서식 작성 시에는 양식 변경이나 가감 없이 양식 그대로 작성하여야 함

다. 응모작 구성

조감도, 전체배치도, 개념도, 주요부 투시도, 주요부 평·입·단면도 등 자유롭게 구성

5. 기타사항

가. 저작권

1)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출품작은 신규 교정시설 설계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되고 제출 작품의 소유권 및 사용권은 주최자가 가짐

- 2) 주최자는 별도 보상 없이 모든 제출 작품을 본 공모와 관련한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한 홍보 및 향후 교정시설 설계에 활용할 수 있음
- 3) 주최자는 수상작의 아이디어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4) 출품작이 타인의 초상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한 사항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함

나. 작품전시 및 반환

- 1) 제출된 응모작은 입상작 발표 후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여 전시할 수 있음
- 2) 제출된 응모작은 반환하지 아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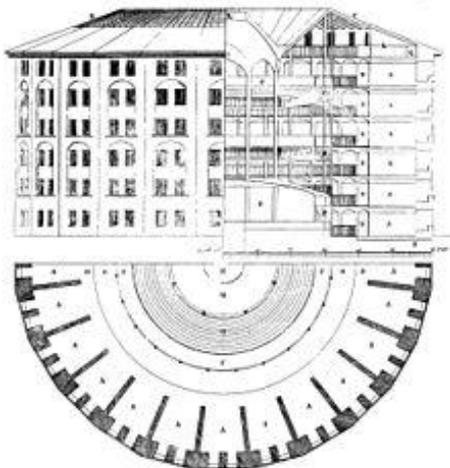
다. 익명성 유지 위반

- 1) 응모자는 도판에 응모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음
- 2) 임의로 응모자 노출 시 실격 처리함. 끝.

- 붙임
1. 공모전 컨셉(Concept)
 2. 수용동의 일상(교도관)
 3. 수용동의 일상(수용자)
 4. 공간별 참고 면적(예시)

- 양식
- 서식 1. 설계아이디어공모 서면질의서
 - 서식 2. 신청서
 - 서식 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8C : Panopticon = 21C : ?



르 꼬르뷔지에가 한 때 꿈꾸었던 도시가 있었다. 축선을 따라 반듯한 길들이 사통팔달로 뚫린 곳으로, 사방의 모든 곳이 투명하게 눈에 들어오기에 범죄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다. 조반니 바티스타 피라네시는 도시의 다른 모습에 끌렸다. 정갈한 흰색, 습기를 말리는 바람 그리고 멸균을 하는 빛 대신 음습한 지하의 세계에 그는 깊은 매력을 느꼈다. 범죄자를 포함하여, 이성의 세계에 적응하지 못한 낙오자, 이탈자, 패자들이 양과깍질처럼 겹이 진 이 어두운 공간 속으로 숨어들었다. 꼬르뷔지에의 지상과 하늘, 그리고 피라네시의 지하 - 이는 근대의 두 얼굴이다. 완충지대 없이 타협이 불가능한 빛과 어두움, 정상과 비정상, 계몽과 야만의 극명한 대조는 근대의 암울한 장면이기도 하다.

꼬르뷔지에가 꿈꾸었던 ‘정찰’ 이 용이한 도시구조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그 기원의 하나는 다름 아닌 제레미 벤덤의 이상적인 감옥이다. 감시가 용이한 감옥의 구조가 도시 구조로 확장된 것이다. 미셸 푸코는 근대사회가 갖는 위계와 감시의 속성을 비판하며, 학교

및 정신병원 등을 그 도구로 지목하고, 이러한 시설들의 가장 명징한 표준으로 역시 벤덤의 감옥을 든 바 있다. 표준 건물의 주변부로 수용자들을 위한 방이 놓이고, 한 가운데에 선 타워에서 감시자가 전체를 관리하는 극도로 효율적인 계획안이었다. 아르고스 파놉테스(Argos Panoptes)처럼 수 백 개의 눈을 달고 선 가상의 감시자는 한 지점에서 이 모든 수용거실을 일시에 바라보면서도 수용자로 하여금 바라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의도였다.

이 불평등과 억압적인 감시가 근대의 시선이었다면, 21세기의 시선은 어떤 것일까? 벤덤의 이상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지니는 것이며, 이 시대의 시선은 무엇이며, 또 이 시선을 바탕으로 한 교정시설은 어떻게 지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일까? CCTV,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은 벤덤이 꿈꾸던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눈’을 가능하게 하지만, 보이어리즘(voyeurism)적인 시선이 지배하는 소통불가능한 일방향 시설이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사방에 눈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에 우리는 몸을 돌려 상대방을 대면해야 하고, 이 대면 속에 바로 특별한 소통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 벤덤의 계획안은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에도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하다 못해 화장실은 어디에 달려 있는 건지 모르겠다.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공포의 ‘눈’ 대신 ‘눈’의 마주침을 전제로 한 계호와 ‘사람’이 지낼 만한 기본적인 환경 구현 등, 21세기의 감옥은 새로운 ‘이상’의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프로토타입은 시설의 이상적인 표준이다. 이 표준을 상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들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실의 환경적 질을 결정하고, 또 실들 사이의 관계를 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시설을 활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짜는 것이다. 수용자들을 위한 ‘거실’이라고 할 수 있는 Dayroom은 어떤 공유의 가치와 행위를 실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할까? 계호자와 수용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설정되어야 할까?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 시선 그리고 접촉의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일까? 영역별 관계는 어떻게 짜는 것이 바람직할까? 보안, 긴장, 개방이라는 관점에서 ‘수용자관리영역’, ‘교도관 후생영역’ 그리고 ‘출입영역’ 사이에는 어떤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까? 또 이들 영역사이의 전이는 어떻게 공간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역별 교배도 가능한 것일까? 예를 들면 수용자와 교도관은 다른 공간이 아니라 동일한 또는 근접한 공간에서 식사할 수 있는 것일까?

대지, 규모, 예산 등 구체적 조건들이 추후에 주어지면, ‘표준’의 핵심은 지키되, 상황에 맞게 변형을 하고 반복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프로토타입은 디자인의 생산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X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토타입은 2X명, 3X명, nX명 등으로 수용인원이 증가할 때마다 자기복제 및 조합을 통해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프로토타입은 사회의 거울이기도 하다. 어떤 실들을 집어넣을 것이며, 크기와 향과 통풍 등 공간의 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공유공간들을 설정할 것이며, 실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영역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짤 것인가는 결국 교정시설이 탄생하고 뿌리를 내리는 배경인 해당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수용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에 대한 진지한 입장이 필요하다. 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면서도 누구도 가까이하고 싶지 않은 기피시설로 간주되는 것이 교정시설의 현 주소이다. 도시의 구석진 한 편에 조용히 선 교정시설의 사회적 중요도를 이해하고, 그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미래 건축디자이너들의 창의적인 해석을 기다린다.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백진 교수 -

어느 수용동 근무자의 일상

오늘은 내 차량이 차량요일제에 해당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날이다. 알면서도 나는 차에 시동을 걸고 회사로 향한다. 나의 직장은 교도소. 외진 곳에 있다 보니 대중교통 이용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외진 길을 들어서서 회사에 도착을 한다. 밤을 꼬박 새운 외부정문 근무자가 피곤한 표정으로 나를 맞는다.

탈의실에 들어서니 나보다 먼저 출근을 한 직장 동료가 옷을 갈아입고 있다. 나는 그 직원이 옷을 다 갈아입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캐비닛으로 다가간다. 내 캐비닛과 마주보는 캐비닛을 사용하는 동료이기에 두 사람이 한 번에 옷을 갈아입기에는 너무 비좁기 때문이다.

휴식을 취하기에도 교육사항을 전달 받기에도 너무나도 좁디좁은 직원휴게실에서서 전날 밤 사이에 있었던 수용자간 폭행사건과 오늘 예정 사항들에 대하여 교육을 받는다. 오늘은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교육사항을 듣는다. 물론 나뿐만 아니라 여러 직원도 서서 지루한 듯 이야기를 듣는다.

휴대폰 반입 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은 제1통용문을 지나 내 근무지가 있는 수용동으로 향한다. 수용자 교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미니화단 때문에 좁아진 주복도(중앙복도)를 지나 내 근무지로 연결되는 다른 통용문 하나를 더 통과한다. 바로 내 근무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수용관리팀실이라고 부르는 팀 사무실에서 가볍게 팀장님으로부터 교육사항을 듣는다. 물론 여기도 내가 앉을 자리는 없다. 요즘 “슬기로운 감빵생활”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사무실에 내 책상도 있고, 소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허무맹랑한 소리다. 그냥 옛날 말처럼 관구실(수용관리팀실)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듯하다. 하긴 기동순찰팀은 새롭게 생성된 부서가 생겨 부족한 사무실 공간도 나눠 쓰는 입장이라 팀 사무실이 좁다가 불평하기엔 내가 너무 욕심을 내는 것 같다.

내 근무지가 있는 수용동에 들어서자 교도소 특유의 냄새가 훅 들어온다. 환기가 되지 않는 시설구조상 어쩔 수 없다. 그래도 거실이 마주보는 양방향식 구조보다는 나은 편이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죽을 맛이다. 특히 여름에는 환기도 안 되고, 더위도 어마어마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라는 내 좌우명처럼 ‘이게 내 직장의 향기지’ 라고 중얼거리며 근무자실로 들어선다.

인수점검을 한다. 근무를 인수 받은 후 수용자 인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역시 내가 근무하는 수용동 복도도 좁다. 책장과 신발장이 복도를 야금야금 잡아먹는다. 점검이 끝나고 나니 요즘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는 ‘소지’(수용동도우미)가 나를 찾아온다. “주임님! 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충을 이야기한다.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 시설에서 무슨 쥐가 나오느냐고 핀잔을 주자, ‘소지’가 구멍이 뚫린 컵라면을 보여준다. 믿을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교도소의 특성상 외진 곳에 위치하다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 너무 혐오시설로만 보는 사람들이 살짝 원망스럽기도 하다. 각 거실을 돌아다니며 수용자들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다. 필요한 사항들은 따로 종이에 적어 내기도 하는데 얼굴 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좋다.

간밤에 5방에서는 잠자리 문제로 다뤘다며 차라리 입실거부를 하겠다며 씩씩거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과밀수용이 되다보니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취침자리 지정제’ 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좁은 잠자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금씩 양보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을 건네지만 내가 보기에도 좁긴 좁다. 그렇다고 무작정 교도소를 더 지어 수용밀도를 낮출 수도 없다. 교도소 하나가 생기려면 어마어마한 난관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도심형 교정시설처럼 이런 곳에도 고층으로 지으면 어떨까 하지만 고층시설에서 근무해 본 근무자들 말을 들어보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근무자의 순찰 범위와 관할 범위가 넓어져 저층시설의 분산형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 이럴 땐 교정학 책에서 본 파놉티콘형 교정시설이 생각나기도 한다.

9시쯤이 되자 사회복지과 직원이 교육이 있는 수용자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 수용동에 왔다. 오늘은 집중인성교육이 시작되는 날이다. 우리 기관은

최근에 지어서 비교적 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지만, 전에 근무하던 시설에서는 교육실이 없어서 수용동 근무자들이 잠깐 쉬던 휴게실을 없애고 그곳을 교육실로 썼었다. 또 수용자를 동행하는 직원도 적은 인원으로 많은 수용자들을 동행하는데 이것은 계호부담이 너무 크다.

기동순찰팀에서 매번 도와주지만 거기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동행질서도 봐줘야하고, 소 내에서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그곳에 출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을 보내놓고 다시 내 스스로 인원 점검을 한다. 수용거실에 부착된 거실현황표로 인원을 확인하고 근무자실로 돌아온다. 전화벨이 울린다. 7실 487번 수용자의 접견이 예정되어 있으니 준비를 해달라는 것이다. 접견동행 근무자 혼자 많은 수용자들을 동행해야 하고 이 수용자들의 각 수용동과 수용거실이 다르니 현장 근무자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무전으로 접견동행 근무자의 무전이 날아오자 서로의 시선 내에서 수용자를 계호하여 인계한 후 가볍게 경례를 하고 돌아온다. 잠깐의 시간동안 쉴까라는 생각을 했더니 아침에 잠자리 문제로 다투었던 거실에서 면담요청이 들어온다. 막무가내로 수용관리팀장님을 빙게 해달라는 요구에 난감하기만 하다.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좁은 거실에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만 하는 우리도 수용자들에게 미안할 때도 있다. 결국 팀 사무실로 동행을 하여 면담을 하게 해줬다. 30여분 뒤 올라 온 수용자의 표정이 밝다. 좁은 거실에서 나와 잠깐 바람을 쐬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나 보다.

곧 운동시간이다. 운동도 마찬가지로 운동근무자와 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구조상 운동장 쪽으로 향하는 비상계단으로 나가며 다른 거실 수용자와 통방(다른 수용거실 수용자와의 대화)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통방하지 마세요”라는 내 지시에 “네! 네~ 알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또 지나가며 다른 거실과 이야기를 한다. 30명 정도의 수용자가 한꺼번에 거실에서 나와 운동장으로 향하는 잠시의 시간은 구조상 너무 혼잡하다. 매번 얼굴을 붉히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운동 근무자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매번 운동을 위해 수용자들을 계호할 때마다 겪는 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운동을 하러 마지막으로 비상계단으로 향한 수용자가 내 시선에서 사라지자 다시 내 스스로 인원점검을 한다. 혹시라도 혼자 남아 있는 수용자는 없는지 임의로 다른 거실에 들어가 있는 수용자는 없는지 등을 점검한다.

30여분의 운동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수용자들이 들어온다. 역시나 이때에도 통방은 이루어진다. 한숨만 나온다. 수용자들을 모두 거실로 들여보내고 다시 인원 점검 후에 팀 사무실에 인원점검 이상 유무를 보고 한다. 잠시 후 큰소리와 함께 욕설이 11실에서 들린다. “주임님 싸움 났습니다!” 가까이 있던 ‘소지’가 소리치기 전에 반사적으로 내 몸이 움직인다. 해당 거실 앞으로 가 보니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고 주먹을 치켜들고 있다. 떨어지라는 내 지시에도 불구하고 한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의 얼굴을 한 대 가격했다. 즉시 나는 기동순찰팀을 불렀다.

나 혼자 거실 문을 열었다가는 흥분한 수용자들이 교도관을 공격할 수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기동순찰팀을 불러야 한다. 기동순찰팀이 오자마자 거실 문을 열고 진압을 한다. 팀 사무실로 해당 수용자들을 데리고 내려간다. 조사·징벌 거실도 부족한데 저 수용자들은 어디로 수용될지 라는 생각이 든다. 나중에 싸운 이유를 들어보니 화장실을 써야하는데 샤워한다고 너무 오랫동안 나오지 않아 욕설을 하며 싸운 것이 발단이 됐다고 한다. 좁은 화장실은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거실마다 샤워실을 따로 만들어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정신없이 지나다보니 어느덧 수용자 점심시간이다. 배식감독을 위해 수용동 복도를 걷는다. 좁은 복도를 요리조리 잘 피하며 배식카트를 움직이는 소지를 보니 감탄스럽다. 배식 감독 역시 중요하다. 먹는 것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 배식감독을 하던 중 식사교대가 왔다. 30여분 남짓한 시간에 후다닥 먹어야 하니 직원식당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이 빨라진다.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 식사·양치·흡연 그리고 부재중 전화 확인까지 말이다. 수용동 근무를 하며 인간관계가 좁아졌다. 연락이 잘 닿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정리된 사람들도 있다. 점심을 먹고 돌아오니 환기가 되지 않는 수용동에 냄새가 가득하다. 오히려 이때가 수용동에서 제일 한가한 시간이다. 물론 무슨 일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다.

오후에는 종교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종교집회에는 다수의 수용자들이 이동을 하는데 그리 넓지 않은 다목적실에서 종교집회를 한다. ‘종교실이 따로 있는 기관도 있는데 우리는 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종교집회에 나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수용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거실 문을 연

다. 수용자 거실은 일렬식으로 배정되어 있고 나는 입구에서 수용자들이 나오는 모습을 봐야하는데, 구조상 어떤 거실에서 어떤 수용자가, 몇 명이 나오는지 제대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럴 때 또 교도소 구조를 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도 이 종교집회가 끝나면 하루의 일과가 거의 정리가 되니 오히려 근무자 입장에서는 기다려진다.

하루에도 수용자들이 거실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다. 면담, 접견, 운동, 집회, 교육 등 수용자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거실 밖으로 나오지만, 근무자 혼자서 관리하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적은 근무인원으로 계호하기에도 용이하고 통방금지에도 효과적인 구조가 있을텐데 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덧 폐방(일과종료)를 알리는 방송이 나온다. 하루에도 여러 번 하는 인원 점검이지만 이 점검이 퇴근 전 마지막 점검이다 보니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야근자는 내가 아침에 했던 것과 동일한 과정을 밟고 나에게 온다. 오늘 있었던 일, 주의해야 할 일들을 인계해준다. 그래도 나는 행복한 편이다. 야근부서의 근무인원은 주간 근무인원보다 적어 한 근무자가 두 개 내지 세 개의 수용동을 함께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항상 긍정적으로 살자”라는 내 좌우명처럼 오늘 힘들었던 일은 담장 안에 두고 육중한 철문을 나선다.

어느 수용동 수용자의 일상

아직도 어둠이 가시지 않은 어스름한 새벽, 어디선가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눈을 뜬다. 내 달콤한 잠을 깨운 사람은 교도관이다. 그리고 나는 수용자다. 흔히 사람들이 쉽게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죄수다. 기상시간은 6시 반이지만 내 몸의 반응도 그렇고 긴 밤을 지새운 교도관의 인기척은 나를 비롯한 수용자를 깨우는 것으로 시작된다.

어젯밤에는 잠을 설쳤다. 옆방에 새로 이감(이송)을 온 수용자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았다. 방음이 전혀 되지 않은 까닭에 그대로 우리 방까지 그 소음이 전달이 되었다. 비몽사몽한 상태로 이부자리 정리를 하자마자 아침 기상 점검을 한다. “각방 차렷~!”이라는 교도관의 외침에 일제히 두 줄로 나란히 앉아 점검을 한다.

좁은 방 안에 앉아 점검을 하려면 두 줄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는 교도관도 우리 수용자도 아는 불문율이다. 자는 공간마저도 좁아 덩치가 큰 동료 수용자가 들어오면 새우잠을 잘 때도 있는데 우리 방은 다행히 덩치가 큰 수용자는 없다. 다른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다 온 동료 수용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나마 우리 소는 사정이 좀 나은 편이라고 했다. 같은 면적 크기의 방에 전에 있던 곳에서는 무려 10명이나 수용을 했다고 하니 고향은 멀지만 여기에 있는 편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나” “둘” “셋”... “일곱”..... 아뿔싸 번호 하나가 빈다. 그 사이를 못 참고 수용자 한 명이 화장실에 씻으러 들어갔다. 점검을 취하던 교도관의 불호령이 떨어진다. “그새를 못 참고 씻으러 갑니까!!” 그저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여기서의 상책이다. 사실 여러 명이 돌아가며 일과 시작 전까지 씻기란 쉽지가 않다. 한 명이라도 먼저 씻어야 아침 식사 후에 설거지도 하기 쉽다. 설거지를 위한 싱크대가 있긴 하지만 작은 싱크대에서 여러 사람이 먹은 식기를 설거지 하기란 쉽지가 않다.

점검이 끝나고 먼저 씻으러 들어갔던 사람이 나오자마자 내가 들어갔다.

얼음보다 더 차가운 찬물로 허겁지겁 서둘러 씻는다. 여름이야 찬물로 씻어도 상관없지만 겨울에는 말이 달라진다. 일주일에 한번 뿐인 온수목욕이 더 기다려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서둘러 씻는 걸 마치자 다음 사람이 나와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방 전체 사람들이 다 씻기도 전에 아침식사 배식을 외치는 소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서둘러 창 철창 사이에 식기 크기에 맞게 뚫린 틈 사이로 식기를 내민다. 바깥의 사람들은 공동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줄 알지만 현실은 그저 방안에서 사육 당하는 것 마냥 방안에서 먹고 자고 쉰다. 예전에는 문 아래의 구멍으로 밥을 배식하여 줬지만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면서 식사는 창문 틈으로 밀어 넣어준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개밥이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고 밥도 맛이 없었지만 지금은 조금 나아진 편이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식기당번제에 따라 설거지를 하고 소지가 커피물이라고 부르는 따뜻한 물을 나눠준다.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받아 아침식사 후 모닝커피 한잔을 즐긴다. 바깥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겐 따뜻한 물 한잔 마실 수 있는 지금 이때가 제일 행복하다.

교도관의 교대가 이루어졌나보다. 우리 수용동을 담당하여 관리하는 주임님(교위)이 오셨다. 이분은 참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 각 방에 설치된 인터폰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들도 직접 오셔서 이야기 하신다. 간밤에 별일은 없었는지 잘 잤는지 등 사소한 일상을 물어보신다. 같은 방의 소위 말하는 꼴통 수용자가 인사를 건네는 주임님께 대뜸 “주임님요! 어젯 간밤에 한숨도 못 잤다 아입니까!”라고 하소연을 한다. 왜 그러느냐라는 물음에 어젯밤 옆 방 코고는 소리에 잠을 못 잤으니 전방(생활하는 거실을 옮기는 것)을 시켜달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누구나 다 겪고 참는 것인데 이 사람은 참 참을성이 없는 것 같다. 첫날이라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 어젯밤 일은 너그럽게 넘어가자는 주임님의 설득에 그 수용자도 “알겠썬니더”라며 마지못해 대답을 한다.

오늘은 운동이 오전에 있는 날이다. 이런 겨울에는 오후 2시쯤에 하는 게 최고인데 이번 주는 우리 방이 오전에 운동이 걸렸다.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수용자가 투덜거린다. 인성교육이 겹치기 때문에 운동을 못 나간다는 것이다. 운동 근무자가 오고 “각 방 운동~!!”이라는 소리에 문이 열린다. 연이어 “교육!!”이라는 사회복귀과 직원의 외침이 들린다. 교육과 운동이 겹치는 바람

에 여기저기 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용자들 많아졌다. 그 때문에 수용동 복도가 복잡하다. 그 틈을 못 참고 옆 방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수용자들도 보이고, 그것을 제지하려는 교도관의 목소리가 커진다. 그러는 와중에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만다. “어제 이방에서 코곤 새끼 누꼬?” 라는 물음과 동시에 “니 아이가?” 라는 말과 동시에 한 수용자가 어제 이입 온 수용자를 향해 주먹을 날리고 만다. “와 싸움났다” “주임님요 여기 싸웁니다!”라는 소리와 동시에 어떻게 알았는지 기동순찰팀이 뛰어와 좁은 복도에서 두 사람을 제압해 데리고 갔다.

운동을 나가든, 접견을 나가든, 혹은 집회를 나가든 간에 꼭 다른 방을 지나쳐야 하고 이 때 누군가가 말을 걸거나 시비를 거는 경우가 더러 있다. 무시하고 가는 게 제일이지만 여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고 나도 그 방에도 사람이기 때문에 욕하는 성질을 못 참고 격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지나친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싸움이라니……

건물과 건물 사이에 마련된 작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한다. 운동이라고 해봤자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터를 왔다갔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돌뿐이다. 격한 운동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족구를 한다든가 농구를 한다는 엄두는 못 해봤다. 출역(작업장에 나가 일을 하는 것)을 하면 대운동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족구 정도는 허락해 준다고 들었다. 30여분의 짧은 운동 시간이 끝나고 다시 거실로 입실을 한다. 운동장에 묻은 흙먼지가 그대로 사동복도에 퍼진다. 나 하나가 흙을 털고 들어온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 운동장의 흙먼지가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으로 들어오고 만다. 더군다나 환기창이라고 만들어 놓은 창은 높이가 높아 환기가 쉽게 되지 않는다.

운동이 끝나고 차례대로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한다.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은 땀이 식으면 추워지기에 규정위반인 줄 알면서 거실 내에서 팔굽혀펴기를 한다. 인원 점검을 하던 담당 주임님의 눈에 딱 걸렸다. “569번! 거실 내에서 운동하면 안 되는 거 모릅니까?” 라는 지적에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반자동적으로 나온다. 샤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교육을 갔던 수용자들이 돌아온다. 좁은 교육실에 몰아넣어 놓고 별 도움도 되지 않을 교육을 시킨다고 투덜거린다. 항상 이 사람은 불만이 많다. 그래도 자세히 들어보면 납득이 갈 때도 있다. 좁고 부족한 교육실, 많은 인원 등 아직 인성교육 차례가

되지 않은 내겐 벌써부터 큰 걱정거리만 안겨준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덧 내 차례가 되었다. 좁은 화장실에서 바가지로 차가운 물을 끼얹으며 후다닥 샤워를 마치고 나니 금방 점심식사 시간이 가까워졌다. 여기서의 식사 시계는 바깥보다 빨리 돌아간다. 아침과 같이 식사 준비와 설거지가 끝났다.

오늘은 점심을 일부러 조금만 먹었다. 기독교 종교집회가 있는 날인데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인 관계로 오늘 간식은 다른 때보다 많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기다리던 종교집회 시간이 되고 교회당으로 이동을 한다. 운동 시간 때처럼 여러 거실에서 많은 수의 수용자들이 사동 복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를 통제하는 교도관의 움직임은 더욱 바빠졌다.

교회당에 도착을 하니 아니나 다를까 다른 때보다 수십 명은 더 나온 듯하다. 그렇지 않아도 4명이 앉아서도 좁은 긴 의자에 다섯 명씩 앉으려니 좁이 수셨다. 그래도 평소에 먹지 못하던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기쁨에 이 잠깐의 고통은 참을 수 있다. 오전에 인성교육을 받았던 옆 수용자가 속닥거렸다. “아까 다른 교육생들은 여기서 교육을 받더라니까 겨우 20명 가지고 말이지” 도대체가 교육을 한다면서 제대로 된 교육실은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졌다.

역시나 예상대로 오늘 간식은 만족스럽게 나왔다. 거실로 돌아가는 긴 복도에 교도관들 예닐곱 명이 간격을 두고 서 있다. 사동으로 향하는 길목과 모퉁이마다 교도관들이 서서 우리를 통제한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전에 다른 교도소에서는 사각지대로 들어간 수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흉흉한 말도 들렸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교도관들의 눈이 더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다.

사동 복도에 들어서자 종교집회에 가지 못한 다른 방의 수용자가 내 간식을 탐낸다. 굴 하나만 달라는 말에 깔끔하게 거절하고 내 방으로 가는데 뒤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 무시가 상책이다. 내 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개의 방을 더 지나쳐야 하니 내 간식 하나를 훔다가는 내 방에 도착하기 전에 내 간식거리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는 전래동화 이야기가 생각 나 피식 웃음이 나왔다.

방으로 돌아오자 인원점검을 하는 담당 주임님의 눈이 바쁘다. 우스갯소리로 직원도 반 징역을 산다고 우리끼리 이야기를 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수용동을

오가는 직원도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다. 어느덧 담당 주임님이 퇴근 할 때가 되었는지 폐방(수용자 하루 일과를 종료하는 것을 말함) 점검을 한다. 우리에게도 담당 주임님에게도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우리에게는 하루가 지나감에 출소가 가까워지고, 담당 주임님은 퇴근 시간이기 때문이다.

“각 방 쉬어~” 점검이 끝났다. 교대를 하고 사동을 나서는 주임님께 소지가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하루 일과가 끝났다고 하여 우리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침 시간이 되기 전까지 거실 내에 누워있다가 직원에게 걸리면 혼쫓이 난다. 물론 융통성 있는 직원은 이해해주지만 뻑뻑한 직원에게 걸리면 본전도 못 찾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좁은 방 안에 하루 종일 앉아 있으려면 졸이 쉬시지만 어쩔 수 없다. 개인에게 허락된 공간은 이곳에 들어 온 내 마음만큼이나 좁기 때문이다.

저녁 8시가 되자 이제 조금은 내 마음이 넓어진다. 이부자리를 펴고 누워 생방송 뉴스를 본다. 유일하게 바깥사람과 내가 동 시간대에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오늘밤은 예년보다 추운 밤이 될 거라는 기상캐스터의 말이 흘러나온다. ‘아 오늘밤은 또 어떻게 지나’ 라는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보일러 가동이 되지만 에너지 절약 차원의 난방 중단 시간이 중간 중간 있어 금방 식어버리는 방은 춥기만 하다.

거실 내의 tv가 한 시간 남짓 떠들더니 이내 방송종료 화면이 나온다. ‘당신이 잠들기 전에’ 라는 3분 남짓한 취침 라디오 방송이 나오고 얼마 뒤 거실 내의 불이 꺼지고 취침등이 켜진다. 교도소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라는 자조 섞인 말이 흘러나온다. 자살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지만 직원도 수용자도 피곤한 일일 것 같다. 다른 방의 누군가가 편지를 써야하니 불을 좀 더 켜주면 안 되냐고 묻는 소리가 들리지만 오늘 밤 근무자는 우리 소에서 제일 뻑뻑한 근무를 자랑하는 직원이기에 터무니없는 애원이다.

우리는 쉬이 넘지 못하는 벽을 넘어 외풍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 오늘 밤은 동료 수용자의 체온을 보일러 삼아 잠을 청해야겠다.

붙임 4. 공간별 참고면적(예시)

공간별 참고면적(예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산출기초	신축 전주교도소 참고면적 예시	
수용자 관리 영역	수용자 개인 공간	수용거실	수용자 200명	1,055㎡	
	수용자 공용 공간	Dayroom	수용자 200명	600㎡	
		샤워실	수용자 200명	77㎡	
		세탁실		예시 없음	
		실외운동장		예시 없음	
	수용 생활 지원 공간	업무처리실	1실	17㎡	
		진료상담실	1실	30㎡	
		다목적실	수용자 200명	40㎡	
	관리 공간	수용관리 총괄사무실	수용자 200명	80㎡	
		종합상황실	수용자 200명	50㎡	
		조사·상담실	수용자 200명	21㎡	
		화상접견실	1실	17㎡	
	선택 공간 (예시)	도서실		예시 없음	
		교육실	수용자 200명	40㎡	
		실내작업실		예시 없음	
		실내운동시설		예시 없음	
		종교실	수용자 200명	100㎡	
		기타			
	교도관 후생 공간	교도관 후생 공간	직원식당	직원 100명	70㎡
			직원휴게실	직원 100명	66㎡
직원침실			직원 100명	70㎡	
출입 영역	출입 영역	로비		예시 없음	
		정문 (출입관리실)	1실	38.6㎡	
		직원탈의실	직원 100명	83㎡	
		소장실	1실	30㎡	
		사무실	사무직원 20명	100㎡	

신청서

등록번호		Y	Q	4	2	3				
작 품 제 출 자	신 청 인 (공동응모자 전원기재)	팀장				(서명)	생년월일	YYYY.MM.DD.		
		팀원				(서명)				
		팀원				(서명)				
	전화번호							E-Mail주소		

법무부에서 주최하는 설계 아이디어 공모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개인작성-자필서명)

2018. . .

법 무 부 장 관 귀 하

----- 절 ----- 취 ----- 선 -----

접수증

※ 접수번호				확 인
신 청 인 (대표자)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YYYY.MM.DD.	E-mail		

접 수 일 : 2018. .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정보주체(성 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 부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취득범위
 - 공모전 참가신청 및 수상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유 식별 정보처리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인 확인, 고지 사항 전달 등과 관련하여 법률 의무사항 이행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파기
4.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법무부의 공모전 참여와 관련한 시상 및 내용(변경)안내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항목, 개인정보 보유 등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미리 고지 받았으며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18. .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전화번호 :